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돼지고기

한 인 경 (과천시 문원초등학교 6학년 4반)

우리집에서는 주말마다 삼겹살을 자주 먹는다. 삼겹살은 엄마께서 주말시장이나 농협에서 구입하신 우리 돼지고기이다.

우리 고기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딱 맞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국산 돼지고기를 가장 즐겨 먹는다. 음식 솜씨가 뛰어난 우리 엄마께서는 돈까스, 탕수육, 미역국 등 여러가지 간식, 반찬을 만들어 주신다. 돼지고기로 만든 탕수육은 수입 고기보다 맛도 일품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고기를 즐겨 먹는 편인만큼 고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다. 지난 1월의 일이다.

제작년에 아래층에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이사하시면서 부대찌개용 햄을 주셨다. 이 햄은 미군부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셨다. 날씨가 추웠던 날이라 엄마께 부대찌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엄마께서는 그 햄으로 먹음직스런 부대찌개를 만들어 주셨다. 자주 먹지 못하는 부대찌개이다 보니 군침도 흐르고 얼른 먹고 싶어서 한 입 떠 먹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맛이 이상했다.

“엄마, 부대찌개 맛이 왜 이래요?”

“왜 그러니?”

엄마께서도 부대찌개를 잡수셨다. 그러더니 엄마께서도 금방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다.

“엄마, 이 햄 오래되어 상한 것 아녜요?”

“아무래도 이 햄이 수입 햄이라 그런 것 같다. 햄은 먹지 말고 당면과 두부만 먹어라.”

그래서 두부를 먹었더니, 두부에도 햄맛이 배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결국 그 부대찌개는 햄 때문에 다른 것조차 먹지 못하고 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로 나는 수입 돼지고기보다 국산 돼지고기가 더 맛있고 우리 입맛에 알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절대 수입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조금 멀긴 하지만 농협이나 주말시장에 가서 순 우리 돼지고기를 사 먹게 되었고, 그 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더 많은 수입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돼지고기가 잘 팔리지 않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엠에프(IMF)시대, 이럴 때 외국 고기보다 우리 고기를 더 많이 사 먹고 사랑해야 경제 위기를 조금 더 빨리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축산물 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여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요즘들어 사료값이 많이 올라 가족을 기르느라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돼지고기를 더 사랑하고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물 사랑, 내가 먼저 앞장서자. **義豚**

직거래장터에서 산 우리 축산물

홍 주 연(과천시 관문초등학교 4학년 5반)

며칠 전 나는 엄마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구경하러 갔었다. 직거래 장터에는 많은 축산물들이 있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셀 수 없이 종류들이 많았다.

엄마께서는 돼지고기와 계란 등이 다른 시장보다 싸다고 하시면서 많이 사셨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직거래 장터에서 산 돼지고기와 여러 반찬, 계란부침이었다. 먹어보니, 다른 돼지고기, 계란보다 직거래 장터에서 산 음식들이 훨씬 맛있었다. 엄마께서도 맛을 보시더니, 다음에 장을 볼때도 직거래 장터에 가야겠다고 하셨다.

나는 저녁을 먹고난 뒤, 축산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우선 수입고기 등 여러 외국 음식들을 먹지 말고, 사지도 말아야 겠다.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들만 먹지 말고 우리 나라 농사꾼들이 직접 가꾸어서 만든 농축산물을 애용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축산물을 잘 애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축산물을 잘 애용하고 아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물에 대한 선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과천처럼 직거래 장터를 여러곳에 만들어 축산물의 맛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축산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많은 것을 알도록 노력할 것이다. 계란 한 개를 먹더라도 농부의 노력을 생각하며 먹어야겠다. 며칠 전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비빔밥이 나왔다. 거기에 계란이 나왔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계란을 남겼다. 나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었다.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계란 부침을 버리다니.....

그 아이들이 축산물을 잘 애용하는 건지, 마는건지 알쏭달쏭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부터 축산물을 애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겠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길러야지 커서도 그 습관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축산물을 사랑하고 아끼자! 축산물은 좋은 것이여!! **養豚**

◇...본고는 '98년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부대행사로 경기도 과천시 직거래 장터에서 치러진 「축산물 소비촉진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입니다. 이 행사는 농림부와 본회 등 축산생산자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관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